

비트코인, 두달 새 2배 급등... 불황에 가상화폐 '들썩'

820만 선 올라... 2만 달러 예상도 제도권 진입 기대감에 가격 상승 변동성 커져 투자·불안정성 우려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가 불황을 틈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폭락세에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던 비트코인이 최근 두 달새 2배 이상 뛰면서 2만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13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최고점인 820만원 선까지 뛰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6일 2661만6000원을 고점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며 400만원 선 아래로 내려갔다. 하락폭으로 치면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치다.

반등세가 가팔라진 것은 이달 들어서다. 600만원을 넘어서 이후 지난 9일 700만원 대에 진입했다. 전일에는 800만원 선을 웃돌며 연말 연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가격이 들썩인 것은 한국 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가상화폐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은 7200달러 안팎에서 움직였다.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제도권으로의 진입 기대감이 꼽히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자회사를 통해 주요 기관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 플랫폼 구축과 관련 광고 허용 소식도 호재가 됐다. 일각에선 미·중 무역 분쟁, 낮은 세계 경제 성장률 등 글로벌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가상화폐의 특성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장미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물로 꼽히는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이 다시 불마켓(상승장)에 진입했다"며 "비트코인이 18개월 내에 2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자산운용사 캐너코드제뉴리티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들어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시세는 이미 지난 봄 바닥을 쳤다"며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며 오는 2021년 3월에는 역대 최고가인 2만 달러를 다시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시장이 급락하면서 가상화폐가 상승세를 탔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남아 있다. 변동성이 커진 상황여서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판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가상화폐는 온갖 거품(버블)의 부모"라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통화의 근본적인 특성이 없어 통화로서의 미래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킹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7일(현지 시각) 해커들의 공격으로 비트코인 7000개가 탈취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세로 약 465억원 규모다. 국내에서는 시장이 침체되면서 붐비트와 루빗, 코인빈, 코인네스트, 트레빗까지 올해 들어서만 다섯 곳이 파산을 선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정부 뒷짐에 암호화폐 뒤쳐진다” 우려

전문가 진단, 전망

글로벌시장 선도 위한 협업 구축 필요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블록체인 정착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심드렁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도 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원인을 다양하게 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등이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거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매집 후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 폭등을 주도했다는 견해를 내기도 했다. 인위적인 조짐인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단,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라는 데에는 대체로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대거 해킹 당하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가격이 오른 데 주목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권은 최근 디지털 금융화를 적극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달러화가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엔화나 위안화 대신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 활용 비중을 높이면서다.

암호화폐 선물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상품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장외시장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소 가격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최화인 블록체인 캠퍼스 학장은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스테이블코인 영역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리스크 검증이 끝나면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한 디지털 금융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에서도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앞장선 금융업인 만큼, 거래가 활발해지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4차산업 육성에 활발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같은 흐름과 반대로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환전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서비스 업체 ‘모인’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와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며 3월에서 4월로 연기했지만, 통합 기준을 이유로 또 심의를 취소했다.

동국대학교 박성준 블록체인센터장은 “암호화폐는 앞으로도 꾸준히 가격을 올리면서 정착할 수밖에 없다”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펠레야 펠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없이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화인 학장은 “암호화폐는 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한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양분화돼 발전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도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대마불사’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가 계속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한다면 국내 블록체인산업은 해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행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원칙은 곧게 믿음은 곧게

금융이 지켜야 할 원칙
고객과 지켜야 할 약속
한국투자증권이 지켜갑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